

저의 마음은 대지와 같고 갈레와 같습니다

① 지혜제일 사리불(舍利佛)

〈중〉전법의 길

놀라움이었다. 해성처럼 나타난 부처님의 존재와 교단의 성립은 마가다국의 정신적 물질적 중심이었던 바라문들에게 충격적이고 위협이었다. 사리불과 목건련의 귀로 인해 라자가하 상류층 자제들과 마가다국 지도자들의 귀의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협은 시기와 질투를 불렀다. 시련이었다. 그리고 더 큰 시련은 내부에 있었다. 사리불의 시련도 내부에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교단의 큰일을 맡고, 부처님의 관심을 독차지한 사리불에게 대중의 시기와 질투가 일고 있었다.



거조암 사리불 나한상

고, 해탈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해탈을 얻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열반을 얻게 하라. 사리불,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과 교단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발전해갔다. 대중과 도량이 늘어나면서 ‘삼귀의’, ‘구족계’, ‘사미’, ‘안거’, ‘자자’ 등 오늘날 날까지 전해오는 계율이 하나 둘 만들어졌다. 부처님의 승가는 교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왓티에서 안거를 마치고 만행을 떠난 사리불은 고향 날라가게 있었다.

대중은 상수제자 사리불을 시기

“세존이시여, 만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흙을 소멸하는 진리등 붓다 교설 전법

사리불의 시련

“목건련, 지금 당장 사리불을 돌아오게 하라. 아난다, 너는 사왓티에서 안거한 비구를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 모이게 하라.” 모든 비구들과 사리불이 동원정사로 돌아왔다. 대중 앞에 합장하고 선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물었다. “그대가 떠난 뒤, 저 비구가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사리불은 교만하고, 제일제 자임을 내세워 대중을 업신여킨다고 하더구나. 또 오늘은 만행을 떠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면서, 저 비구에게는 무례를 범하고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떠났다고 하더구나. 사리불, 저 비구의 말이 사실인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대는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그대가 대중의 의심을 산다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버립니다. 더러운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갈레는 깨끗한 물건도 닦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도 닦습니다. 그런 것을 닦더라도 갈레는 싫어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대지와 같고, 갈레와 같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논쁜 진리,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세존이시여, 늘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만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몸짓과 목소리는 어떤 의신도 끼어 들 수 없이 청정하고 단단했다. 침묵이 흘렀다. “비구여, 이제 그대가 말해 보아라.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리불을 비난했던 비구가 부처님 발아래 엎드렸다. “세존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청정한 수행자를 모함했습니다.” “그대는 먼저 사리불에게 참회하라.” 사리불이 눈물짓는 비구 앞에 합장하고 앉았다. “비구의 허물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었다면 비구께서도 용서하십시오.” 부처님의 교단은 날로 커져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못지않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 제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부처님의 혜안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사리불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만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사리불,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제도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제도하

전법에 힘썼던 사리불이기에 그의 이름은 훗날 여러 경전에서 만날 수 있다. 잡야함경(雜阿含經) 18권 염부차경에는 사리불이 어릴 적 친구인 잠부카다카에게 설법하는 대목이 있다. 사리불에게 많은 설법을 들었던 사람이다. 사리불 또한 그를 통해 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잠부카다카가 고향을 찾은 친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묻는다. “사리불이여, 닦고 닦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사리불이 부처님의 진수를 전하기 시작한다. “있느니라. 이른바 팔정도(八正道)이니, 고통을 소멸하는 참된 진리 8가지가 그것이다. 바르게 보는 것(正見), 바르게 생각하는 것(正思惟), 바르게 말하는 것(正語), 바르게 행동하는 것(正業), 바르게 생활하는 것(正命), 바르게 노력하는 것(正精進), 바르게 기억하는 것(正念), 바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正定)이다.” 다시 잠부카다카가 사리불에게 묻는다. “열반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무엇인가?” “무명은 무엇인가...?” 인류의 고민은 그런 것이었다. 잠부카다카의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와 같이 내가 들



그림 · 김홍인

었다. 열반이라는 것은 탐욕이 영원히 다하고, 성냄이 영원히 다하고, 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하고, 일체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한 것이니, 이것을 열반이라 하느니라.” 사리불의 설법도 이어졌다. 아니 부처님의 정수가 이어졌다.

데바닷타의 반란

부처님의 명성과 교단의 입지는 커져만 갔다. 제자들의 공부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역량도 점점 커져 갔다. 라자가하에서 데바닷타의 명성은 대단했다. 부처님의 사촌이다. 사리불 역시 그를 뛰어난 비구라고 칭찬했다. 명석한 두뇌에 유창한 언변으로 그의 주위에는 항상 권력과 재산을 갖춘 이들이 넘쳤다. 거기에 범비사리왕의 왕자 아자파삿투의 스승이 되고, 아자파삿투가 태자가 되자 그의 위세는 더욱 높아졌다. 데바닷타를 따르는 비구들이 점점 늘어갔다. “비구들이여, 많은 보시와 명성은 수행자에게 불과 같다. 불이란 이익도 가져오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재앙을 불러온다. 바나나나무가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말라죽는 것처럼, 분에 넘치는 공양과 명


성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꾸짖음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죽림정사에서. “세존께서는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선정에 들어 마음 편히 쉬십시오. 교단은 제가 잘 통솔하겠습니다.” 데바닷타가 부처님께 말했다. 대중 모두는 놀랐다. “데바닷타, 나는 사리불이나 목건련에게조차 교단을 맡기지 않고 있다. 공부가 한참이나 멀고 먼 너에게 어찌 교단을 맡길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한 모욕을 당한 데바닷타는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을 없애려 했지만 부처님의 범력 앞에서 번번이 실패한다. 결국 데바닷타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고행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500명의 비구를 이끌고 가야산으로 가서 별도의 승가를 꾸린다. 부처님은 형식적인 고행이 열반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리불과 목건련에게 데바닷타를 따라간 500명의 비구를 데려오라 명한다. 목건련이 사리불에게 묻는다. “어찌하면 좋겠나?” 사리불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가세, 우리도 데바닷타에 합류하세요. 목건련이 놀라며 물었다. “자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리불이 목건련을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

었다. 목건련이 사리불의 미소를 읽었다. 둘은 가야산으로 향했다. “잘 오셨소, 사리불과 목건련.” 데바닷타는 부처님의 수제자 둘이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말에 들뜬 수박에 없었다. “여기 부처님의 제일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련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었다.” 잔치를 열고 흥겨워하던 데바닷타가 잠이 든 사이 사리불은 500명의 비구를 불러 모았다. “사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인을 가까이 하면 훗날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되느니라.” 데바닷타를 따르던 비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지했음을 깨닫고 사리불과 목건련을 따라 부처님께 돌아온다. 데바닷타는 그 후로 부처님을 뵈지 못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데바닷타’도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에게 지혜제일 사리불이 있었다.


순교한 목건련의 열반

“사리불 존자님!” 라후라가 피투성이가 되어 허겁지겁 달려왔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외아들이자 사리불 자신이 출가시킨 제자였다. “무슨 일인데 네 모양새가 그런 것이냐?” “목건련 존자께서...” 라후라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친구 목건련이 포교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의도들에게 몰매를 맞은 것이다. “지금 목건련 존자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라후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처님이 처음 법을 펼칠 당시, 인도는 기존의 바라문교를 비롯해 많은 종교와 사상이 혼재하는 복잡한 사상계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바라문교의 견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 죽림정사는 늘 그들의 위협 속에 있었다. 바라문교의 광신자들이 대낮부터 횡포를 들고 죽림정사의 길목을 차지하곤 했다. 부처님께서 법을 퍼신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바라문의 시기와 질투는 꺼질 줄 몰랐다. 그들의 음모와 모략은 끊이지 않았고, 부처님의 목숨을 노린 사건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서로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사리불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죽림정사 어귀의 대숲에 목련존자가 누워있었다. 사리불은 오열했다. “나는 이미 열반에 들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마게.” 목건련 존자가 피투성이가 된 입술로 사리불에게 말했다. 사리불은 울부짖었다. “도대체 신통력은 뭘다. 어찌 이 지경이 된 건가?” 목건련 존자는 ‘신통제일’이었다. 다시 목건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업이네.” 사리불은 목건련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사리불은 그제야 목건련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다. 갇혔던 사리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건련은 의도들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교단을 구하기 위해 순교를 결심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편안히 열반에 들겠네.” 친구의 마지막을 바라보던 사리불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자랐고 함께 고민했고 함께 출가하여 칠십 평생을 같이 지냈네. 어찌 나 혼자 친구의 열반을 지켜보란 말인가... 나도 함께 열반에 들겠네.” 대숲에 바람이 일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범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이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에비스님)모집